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서울대교구 총대리, 해외선교 담당 교구장대리 **구오비 욘 주교**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마태오 복음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마주할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힘이 되어줍니다. 선교사들은 오늘도 주님 약속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2000년대 초, 신학교 영성 지도 신부로 봉직하던 중 프랑스의 오베르뉴(Auvergne) 지방에서 바캉스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와 비슷한 그곳에 도착한 날, 저는 ‘주간 르몽드’ 지를 구입했습니다. 기사에는 프랑스 교회가 20년 만에 30개 본당이 1개 본당으로 축소될 만큼 극심한 성소 부족을 겪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어느 주임 신부님의 인터뷰와 표지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수녀원 공동체에서 휴식을 취하려 했으나, “한국인 사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 주임 신부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신부님은 공소 신자들을 위한 미사를 간곡히 청하셨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신자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저는 공소 회장님의 안내로 여러 공소를 방문하며 ‘성체 현양과 성시간’을 함께했습니다. 공소 제의실에는 과거 본당 시절의 화려했던 제의와 성물들이 먼지 속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축제에서는 암 투병 중인 한 할아버지가 수녀원의 십자가를 부셨던 일을 고백하며 용서를 청하셨습니다. 그날 밤 수녀님들은 “오늘 기적이 일어났어요!”라며 크게 감격하셨습니다. 여름 방학 내내 매일같이 공소 미사와 교회 행사를 위해 뛰어다니며, 저는 ‘남은 생애를 프랑스 선교사로 살아볼까?’ 하고 스스로에게 자문하기도 했습니다.

이토록 발전하고 성장한 세계 안에서도 영적 갈증을 느끼는 이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선교란 하느님의 시선으로 이웃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다가가는 발걸음이며, 해외 선교는 교구가 더욱 성숙해지는 소중한 길입니다. 교회 구성원 모두가 직접 선교지로 나갈 수는 없지만, 기도로 선교사와 유대하고 선교 사업을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보편적 사명입니다.

교구민 모두가 평신도 선교사를 모집하고 양성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해외 선교의 체험은 우리 교구를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재해 소식 속에서도 그곳에는 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빛을 밝히고 있는 그들의 여정에 함께하시겠습니까?

후원해 주세요!

후원계좌

우리 454-035571-13-101 | 국민 375-01-0091-080 | 신한 140-009-624437 | 농협 386-17-002881
예금주 _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후원 방법

(1, 2 중 택일)

1. QR 코드 접속 또는 ARS 1877-1336

- CMS(자동이체),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한 정기·일시 후원이 가능합니다.

2. 직접 후원계좌로 송금 또는 자동이체 신청 후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위의 4개 은행 중 택일)



후원 신청 QR

후원 문의

02) 727-2407, 2409 | <http://mission.catholic.or.kr>

앗! 하는 사이에 할 수 있는 일



김필중 세례자요한 신부
일본 도쿄대교구



서울교구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는 4월이면 일본에 온 지 어느덧 만 4년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눈 깜짝 할 사이에’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곳에서는 ‘앗토이우마니(あっと言う間に)’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앗! 하는 사이에’라는 의미로, 그만큼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음을 뜻하지요.

지나온 4년이 정말 ‘앗토이우마니’ 흘러갔습니다.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모든 것이 무사히 이루어졌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평생을 일본에서 지내다 한국으로 돌아가신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어느 날, 이민자 사목을 담당하시는 타카키 신부님으로부터 번역을 부탁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도쿄의 어느 산에서 동반자살을 시도했던 노부부가 발견되었는데, 알고 보니 비자 갱신조차 하지 못한 불법체류 신분의 한국인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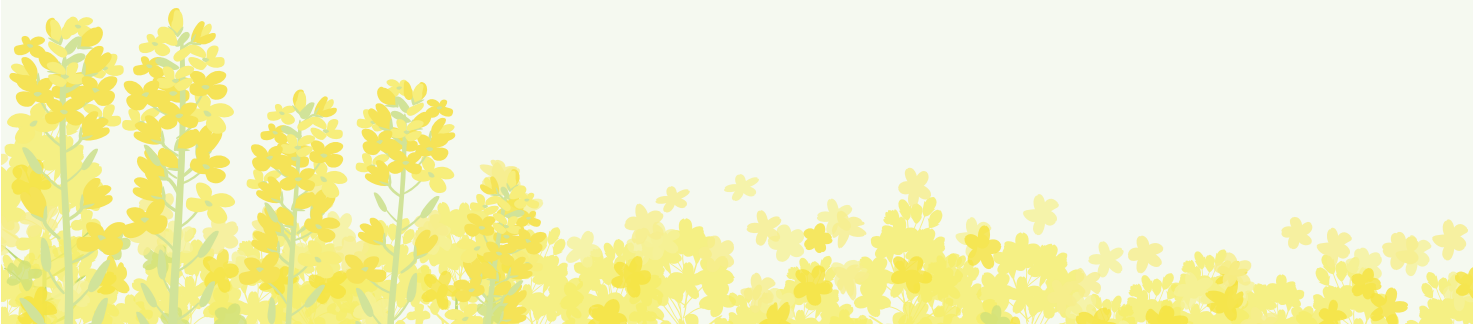
치료가 끝날 무렵, 병원 측에서는 이분들이 머물 시설을 수소문했고, 소식을 접한 타카키 신부님께서 일정 기간 책임을 맡기로 하고 두 분을 모셔 왔습니다. 고된 일본 생활에 지친 노부부는 고국인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고,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절차가 급선무였습니다.

다행히 한국에 있는 친척을 찾아 연락이 닿았고, 신분을 증명할 서류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서류를 한국 영사관에 제출하기 위해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서둘러 번역해 보낸 결과, 두 분은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톨릭 요양시설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세례까지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부부는 “가톨릭 신자도 아닌 우리를 왜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시나요?”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저 또한 이번 일을 통해 가톨릭 교회가 실천하는 사랑은 세상의 모든 경계를 초월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와 후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실천이자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사명일 것입니다.



세상의 끝에서 전하는 부활의 희망



이준호 베드로 신부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주노대교구



찬미 예수님.

지난 1년간 알래스카의 주도인 주노(Juneau)에서 보좌신부 생활을 하며, 이곳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토대로 사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트카(Sitka) '성 나지안즈의 그레고리' 본당으로 발령받아 현재 이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시트카는 알래스카 남동부 지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며,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관할하던 당시의 주도였습니다. 이곳에서 약 180명의 신자분과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기쁨 소식을 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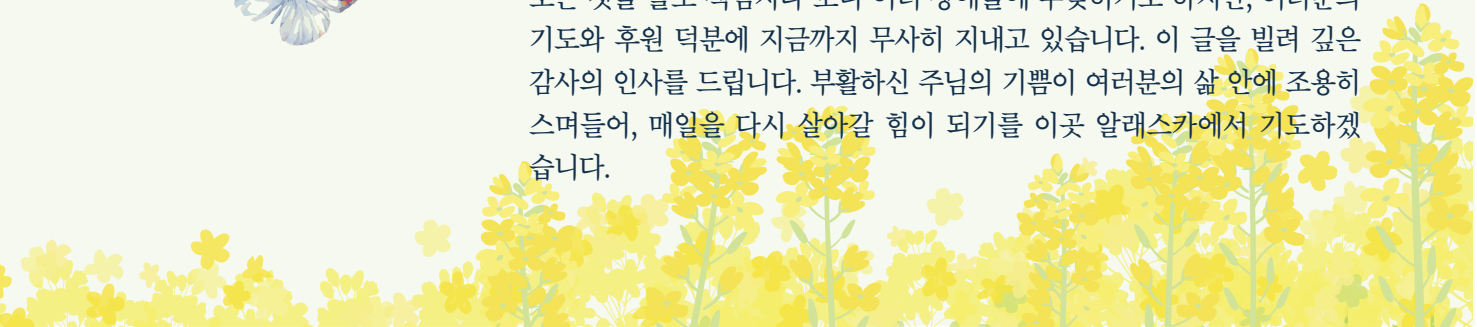


이 선교지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북반구에 위치하다 보니 여름에는 어둠이 절실하고, 겨울에는 빛이 귀합니다. 또한 섬이라는 환경 덕분에 서울에서 자란 제게 바다는 새로운 터전이자 마음의 큰 여백이 되어 줍니다. 선교지 특성상 전례, 사무, 관리를 비롯한 본당의 모든 일을 혼자 담당해야 하기에 어려움도 크지만, 그 고단함과 공존하는 즐거움은 이곳의 차가운 바람만큼이나 익숙한 정서가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눈이 정말 많이 내려 종일 눈과 사투를 벌이는 날도 잦았습니다.

지내다 보면 미국 문화와 제 안의 한국적 정서가 충돌하고 화해하며, 때로는 확장되어 고독과 외로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성당 앞 항구를 걷거나 바다에 나가 하염없이 파도를 바라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어느 날엔 고래들이 찾아와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고, 예기치 않게 오로라가 펼쳐지면 그 자체로 창조주이신 주님께 압도되곤 합니다. 여름에는 크루즈를 타고 온 관광객들이 성당을 찾아와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손님맞이의 계절'이 되고, 바람이 차가워지면 가정 방문을 통해 우리 신자들만의 돈독한 공동체 시간을 갖습니다.

크루즈 관광객들을 배려해 평일에는 오후 12시 5분에 미사를 봉헌하며, 오후에는 본당 활동이 이어집니다. 월요일에는 초등부 기도 시간, 화요일엔 고등학생들과의 기도와 나눔, 수요일엔 예비자 교리, 목요일엔 사목회의나 개인 면담, 금요일엔 십자가의 길이 이어집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는 로사리오 모임과 17년째 이어져 온 '사랑의 밥상'을 준비합니다. 지난주에는 한국식 카레와 단무지를 준비했는데 다행히 모두 좋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홀로 책임지다 보니 여러 장애물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지금까지 무사히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글을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안에 조용히 스며들어, 매일을 다시 살아갈 힘이 되기를 이곳 알래스카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젊은이 선교 체험



참가 신청

이번 여름, <젊은이 선교 체험>을 통해 살레시오 수녀님들께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며 선교하고 계시는 몽골 울란바토르 외곽의 작은 마을을 방문하려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선교사들의 삶을 직접 경험하고, 현지인들과 손을 맞잡고 함께 걸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여정 동안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талан트를 기꺼이 나누며, 나 자신이 바로 선교의 주체가 되는 특별한 체험을 함께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 체험기간** 2026년 6월 30일(화) ~ 7월 9일(목), 9박 10일 | **지역** 울란바토르 외곽 살레시오 수녀회 운영 '노명요스 초등학교'
- 선발대상** 1990년 7월 1일 이후 출생 성인 (만 35세 이하) *선발된 인원에게는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첫 모임** 4월 25일(토) 오후 4시, 교구청 별관 5층 523호 *첫 모임 이후 총 5회의 준비 모임 진행 (일정은 첫 모임 시 조율)
- 참가비** 50만 원 | **신청기간** 4월 12일(일) ~ 4월 20일(월)

해외 선교사 인재 은행



선교사 인재뱅크

평신도 선교사 프로그램은 '인재 은행'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던 나의 소중한 노하우가, 이제는 하느님의 손길이 되어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일 소중한 기회입니다. 해외선교사 인재 은행에 용기 내어 등록해 주세요. 여러분이 가진 어떠한 재능도 모두 하느님께서 주신 귀한 талант입니다.

인재 등록	요청 & 초대	응답	준비	파견
연령 제한 없이 건강과 재능을 갖춘 분이라면 누구나 등록 가능	현지 선교사의 필요에 따라 등록된 인재에게 초대장 발송	개인 일정과 수행 가능 업무 확인, 응답 후 팀 구성	교육, 기도, 협업을 통해 6개월간 영성 및 실무 준비	선교사업의 경중에 따라 10일~3개월간 현지 선교 수행 후 귀국

매월 첫 목요일 후원회 올레미사

일시	2026년 5월 7일(목) 오후 2시	일시	2026년 6월 4일(목) 오후 2시
장소	문화관 2층 소성당(교스트홀)	장소	문화관 2층 소성당(교스트홀)
집전	우석제 도미니코 신부 (과테말라 선교)	집전	정록수 헨리코 신부 (과테말라 선교)
대상	별도의 신청없이 누구나	대상	별도의 신청없이 누구나